

“박남선씨 개인 조문을 광주 대표하듯 호도 말아야”

5·18 시민군 박남선씨 노태우 조문에 오월단체 부글부글

박씨, 5·18유족회와 무관...역사적 단죄도 끝나지 않아 광주·전남 전체가 노씨를 용서한 것처럼 비춰져선 안돼

광주 오월단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노태우(89)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서는 안된다는 오월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국가장을 결정한 데다, 5·18 유족이 노씨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면서 화해·용서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의 보도까지 터져나오면서다. 오월단체들은 제대로 사과를 받은 적도, 제 잘못

을 제대로 인정할 적도 없는데, 무엇을 용서하라는 것이냐며 예전 사면 조치로 빚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지난 27일 5·18 희생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67)씨가 노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내용을 5월 단체 전체의 뜻인 것처럼 표현된 데 따른 우려를 표시했

다. 당시 박씨는 조문을 마친 뒤 “광주학살 사건에 대해 전두환씨를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사죄표명이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아들(노 이사장)을 통해 수차례 책임을 통감하는 말을 해 왔다”고 조문 이유를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죄 표명을 한 만큼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용서의 뜻을 내비쳤다. 5·18유족회는 자칫 오월 단체의 분열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남선씨는 5·18 유족인 것은 맞지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유족회 대표·회장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5·18유족회와 전혀 무관한 개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유족회는 노씨가 사망했을 때부터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장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성명서를 내왔다”면서 “박씨의 개인 행보가 5·18의 희생자들이 모두 노씨를 용서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월 오월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노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에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을 제외한 광주·전남의 대부분의 관공서가 조기계양을 하지 않고, 연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박씨 개인적 행동이 지역 전체 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광주·전남의 민심과는 다른 한 개인의 조문이 광주·전남 전체가 노씨를 용서한 것처럼 비춰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5·18 당시 총부리를 겨눴던 시민군의 한 사람으로서 재현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문을 갔다”면서 “내가 유족 대표라는 표현은 일부 언론이 오보한 것이며 유족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태우 국가장 반대’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까지 96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압수한 사행성 오락기 처리 골머리

위탁 보관 환경공단 창고에 1만여대 팔지도 못해

검·경에 반환도 어려워

2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 공공자원사업부 압수물사업소. 약 6000㎡ 규모의 압수물사업소 부지 내에는 330㎡ 이상의 창고 4개가 세워져 있었다. 창고에는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오락기가 1만대가 넘는 사행성 오락기로 가득하다. 모두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것들이다. 환경공단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압수를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0여년 전인 2008년 검·경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이 맺고 보관해오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공단은 최근 5년 간 압수물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260억원의 적자를 봤다. 협약 초기만 하더라도 압수물 매각 수입이 쓸쓸, 별도의 위탁관리비용을 내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고 한다. 최근부터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단가 등이 하락하면서 적자 폭도 커졌고 판매도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도 지난 3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압수

물을 팔고 재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야 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제값도 못 받는다.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의 경우 광주와 정읍 등 5570㎡ 부지에 쌓아놓은 사행성 게임기만 9983대에 이르고 불법 오락용 PC도 702대가 보관중이다. 모두 1만685대나 된다. 호남본부 뿐 아니라 전국 7개 지역본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무려 7만대(6만 9640대)에 육박한다. 돈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환경공단의 큰 문제라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검·경이 도로 가져간다면 좋겠는데 검·경이 ‘준비가 안됐다’며 내키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환경공단 관계자 전언이다. 자칫 힘 있는 수사기관과 불편한 관계가 될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언론 등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꺼리는 형편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절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단은 업무 이관을 바라지만, 검경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통 앞둔 지산IC서 소방훈련 28일 오후 개통을 앞둔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에서 광주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 등이 차량 화재 상황을 설정해 고립 차량의 퇴로(화차로) 확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1심 선고 연기 왜?

법원,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11월 25일 재판 재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이 회장측의 변론재개(再開)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는 행태’로 보고 지난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검찰 구형까지 진행된 뒤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이 회장의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건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재개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달 ‘증인 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는 이 회장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 이후에도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했고 선고를 1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재개신청을 냈다.

이 회장측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측은 지난 5월부터 잡혔던 재판을 두 차례나 미루는가 하면, 혐의를 거쳐 잡아놓았던 증인 신문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으로 재판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이 넘도록 1심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광주경찰, 14명 영장 신청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31)씨 등 14명 조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됐

다. A씨 등은 2013~2017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60여 차례의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누리집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계좌 정보 등을 빼돌려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댐 (호) 2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장성 IC. 5분
(사우실 리모델링향,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010-6670-9800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